



채소지

채소를 알고 기록하는 곳

똑같은 채소라도, 농부마다 수많은 채소의 맛이 있습니다. 채소지에는 채소를 키우는 농부의 삶과 농사 이야기를 담습니다.

흙과 풀과 벌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의 숲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곳에, 그 숲에서 자라나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 농부만의 특별한 채소 맛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천히, 산을 아끼며

두번째 이야기

건강한 산에서 스스로 자라는 나물

세 번째 이야기

지금 가장 맛있는 채소, 4월



우리 민족의 시작을 담은 단군신화에는 꿈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귀한 채소가 등장한다. 바로 쑥과 마늘. 그런데 ‘마늘’은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이 아니라 옛부터 한국에 자생해온 ‘산마늘’이라고 한다. 이른 봄 보릿고개 때 목숨을 이어 주던 풀이라 해서 목숨 ‘명’에 이을 ‘이’,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 귀한 채소이다.

터져나오는 꽃망울도 조심조심 보게되는 이 봄, 신묘한 생명력을 품은 듯한 산나물을 맛보고 왔다. 나무 아래에서 갓 딴 산마늘의 여린 잎은 온몸이 활 깨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향과 맛을 지녀, 이 봄 내내 그리울 예정이다.

어릴적부터 동물과 자연을 좋아해 목장을 꿈꾸었다는 농부는 오랜 시간 산에서 절로 자라온 나물들을 보며 농장을 시작했다. 산비탈에는 온갖 산나물이 자라도록 하고 길을 낸 곳에는 여러 꽃과 약이 되는 나무들을 심어 연중 다양한 색과 모양들로 산이 채워지도록 큰 그림을 그렸다. 오랜기간 바빠 일하던 습관 대로 여전히 잠을 아끼며 산을 일구고 농장 안팎에서 삶을 짓고 있다. 산등성이 사이로 동그랗게 내려다 보이는 농장 길을 따라 걸으며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농부에게서 자부심과 함께 단단한 힘이 전해진다.

생명력 강한 산마늘이 보드라운 잎을 내민 3월 말,
산 속 숲에서 나물을 얻는 농부, 슬로우파머를 만났다.

슬로우파머

첫 번째 이야기

천천히, 산을 아끼며



중학생때 꿈이 목장을 하는 거였어요.

2010년 12월 31일에 회사를 나와서 1년 동안 귀농을 준비하고 2012년 2월에 내려왔지요. 처음 귀농할 때 마을 어귀 탑동빌라에서 3년간 혼자 월세로 지내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충주 시내에 살면서 출퇴근 하고 있어요. 이 마을 가구수가 41

가구인데 제가 살았던 빌라에만 18가구가 살아
요. 작은 마을이죠.

원래 귀농 생각했을 때도 농사만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농장이 수안보 온천 바로 옆이니 오신
분들이 산림욕도 할 수 있는 수목원을 만들고 싶
었어요. 수목원의 테마로 건강한 산채가 자라도
록 하고요. 그래서 농장도 열매를 약으로 쓰는
약용수들을 군집하지 않고 가로수처럼 키우는 방
식으로 디자인했죠. 하다보니 그중 체험 프로그
램과 가공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자연과 동물을 좋아했거든요. 중학생때 꿈
이 목장을 하는 거였어요. 어릴적 ‘초원의 집’이라
는 목장 배경의 미국 유명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죠. 중3 겨울방학때 철원 젓소 농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목장이
눈으로만 보던 네덜란드 목장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방목을 하는데 여기는 아
니니까요. 그때 목장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그러
다 어른이 되고, 다니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
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죠.

귀농 전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스마트팜이었어
요. 회사 다니면서 삼성경제연구원의 스마트팜 관
련 연구자료를 많이 찾아봤지요. 그때는 관련 기

자재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고가였어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양액재배로 깨끗하게만 생산하면 우리는 유통이 잘되니 일본의 저녁 상에도 올릴 수 있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201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귀농 공부를 하다보니 스마트팜은 기업 정도 되어야 쓸 수 있는 큰 자본이 필요한 거라 개인이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2011년에 천안연암대학의 12주 합숙 도시민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어요. LG에서 운영하는 농축산 특성화 전문대학인데 12주동안 종일 교육이 알차게 돌아가서, 기본 작물 농사를 다 맛보게 해줘요. 중반에 본인이 좀 더 배우고픈 심화 작물을 더 해보게 하고요. 비닐하우스 만드는 것도 직접 해보게 해요. 그때 산채 교육을 받으면서 스마트팜은 자본이 없어서 못 하지만, 집안에 산이 있으니 산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휴양공간을 꾸미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시작 초기에는 직업병 같은 게 있었어요. 건설업에 오래 있으면서 설계, 시공, 신도시 개발 기획업무를 했었거든요. 신도시 개발 때는 몇 천 억 규모의 사업을 기획한 경험이 있으니, 저는 정작 돈이 없으면서 눈만 높아진 게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자연과 농업 특히 임업에 대해 문외한인데 사업 계획은 크게 세운 거죠.

처음 산에 길을 낼 때는 주변에서 더덕향이 나는데 어떤 것이 더덕인지도 몰랐어요. 주변 분들이 있을 보면 안다고 알려주셔서 하나하나 알게 되었죠. 저는 정말 멧 모르고 크게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산은 농기계도 쓸 수 없으니 다 인력으로 해야하거든요. 서류상의 재배면적에 경사 등은 포함이 안되니까 서류상 평수는 밭과 똑같아도 훨씬 많은 면적이에요.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귀산촌을 계획하는 분들께는 2~300평에서 1000평 정도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아무것도 모르니 천천히, 깨끗한 산을 최대한 아끼며

2012년 첫 해 가을부터 산마늘을 식재했고 지금은 5,500~6,000평 정도 키우고 있어요. 처음 산마늘을 식재하려고 풀을 뽑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하나고 제초제를 뿌리라 하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 다음날 제초제와 분무기를 사와보니, 이미 제가 대상지의 60% 이상을 손제초해놨더라고요. 그 동안 한계 억울해서라도 농약 쓰지 말고 마저 하자 해서 작업을 완료했어요.

지금은 매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청정숲푸드’ 인증 검사가 나와요. 이 인증은 유해성분 검출이 아예 없어야 해요. 농업 쪽 유기농인증은 유해성분이 일정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되는 방식인데, 임업쪽에서는 불검출이어야 하니 더 까다로운 거죠.

산마늘은 다비성 작물이예요. 2018년 겨울 산마늘 재배지에만 유기농 유박을 뿌렸더니, 2019년 청정숲푸드 인증 검사에서 산마늘만 떨어졌어요. 2017년부터 계속 받아왔는데 2019년에는 유박 뿌려진 곳에서만 뭔가 조금 검출되었다고 통과가 안된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하니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죠.



농장에 필요한 퇴비는 다 만들어서 사용해요. 2015년 유기농기능사 자격도 취득했어요. 2014년부터 산에서 나온 나무들을 파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한 미생물을 받아다 넣어 부숙시켜 만든 퇴비예요. 외부 것이 아닌 이 땅에서 큰 생명을 이 땅에 다시 뿌리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죠. 초기엔 부숙 되면서 생기는 열기와 탄소 때문에 주변이 자욱할 정도로 김이 나오더라고요. 부숙 후 퇴비를 쓰려고 보니까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가득해서 수안보 곤충박물관에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1톤 트럭 양의 퇴비에서 애벌레만 8-9키로 정도 나왔으니, 몇백마리는 나온거죠.

농장의 면적이 넓은 편이고 기계도 못쓰니 수확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인력을 쓰는데, 인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로 마을분들과 해요. 우리는 풀도 겨울에만 깎으니까 바쁠 때만 손을 빌리죠.

농산물과 임산물의 특징은 크게 다르거든요. 보통 농업은 밭에서 풀을 관리하면서 키우는데, 저는 나무 사이사이에서 키우는 임간 재배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연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면서 효능이 좋아지죠. 산나물들은 풀과 함께 자연 그대로 자라야 해요.

‘청정숲푸드’ 인증을 받은 임가 중 저희 산마늘이



폴리페놀 성분도 많아요. 작물은 최대한 자연에 있어야 스스로 살아남으려 영양소도 많이 만드는 듯해요. 처음에는 활착이 잘되라고 3년 정도 풀을 잡았어요. 그런데 뿌리를 건드리는 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는 그대로 키워요. 겨울에만 예초기로 풀을 싹 깎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칭이 되고 퇴비가 돼요.

봄이 되면 산마늘과 눈개승마 등 산채류가 풀보다 먼저 나오니까 풀에 치이지 않아요. 나물들이 먼저 자라고, 한참 더울 때는 풀이 나오면서 그늘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잡아주죠. 자연과 작물을 이해하면 자연이 다 키워줘요. 자연농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돌이켜보면 귀농 전에 스마트팜을 하려했던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사업적으로만 접근했던 거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2011년에 1년간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슬로우파머란 닉네임을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천천히 가자는 뜻으로 지은 거였어요. 귀산촌해서 내 농사를 꾸리다 보니, 깨끗한 산을 최대한 아끼며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 그대로 농장명으로 가져왔고, '순수자연주의 농장'을 서브네임으로 붙였죠.



밭이 아닌, 산이라 가능한

저희는 산에서 임산업을 하는게 강점이죠. 요즘은 산마늘도 대부분 밭에서 농사짓거든요. 산림청이나 농업진흥청에서도 저희처럼 최대한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요. 산마늘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저희 재배지는 해발 440m 정도의 분지에다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숲이 있으니 나무 그늘도 많고요. 이런 계곡부에서 산나물들은 잘 자라요. 밭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햇살을 많이 받으면 생육도 늦고 잘 자라지 않아서 식

감도 좀 더 두껍고 질겨진다고 할까요? 그늘 속에 있어야 잎도 커지고 부드럽고 향도 좋아요.

저희 농장에는 중장비가 없어요. 산에는 임업용 02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경사가 있으니 잘 뒤집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작은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직접 하고, 큰 일은 장비 기사님을 불러서 해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전하고 결과가 좋더라구요. 제가 하면 며칠에 할 것을 하루에 하시죠.



2019년 일부 면적 수종갱신을 하려고 산에 있던 나무를 일부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다시 심었어요. 임업은 나무를 키워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걸 경제수종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수종으로 바꾼 거죠. 별목한 곳에는 낙엽송과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신나무라고 단풍나무과 나무도 있는데 올해부터 수액을

받고 있어요. 산림과학원에서도 신나무수액이 고로쇠보다 영양분과 활용도가 높다고 발표했는데, 저희 농장이 올해 자생 신나무 군락지로 선정되어서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계세요.

저희 산마늘 재배지는 원래 혼유림으로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소나무와 오리나무, 봉나무 등이 같이 사는 거죠. 산나물들의 대부분이 반음지식물이라 그들이 있는게 좋은데, 딱 어떤 나무가 좋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산마늘은 활엽수 아래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들이 넓게 쳐서 그런 듯해요. 낙엽송 아래는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인지 약간 늦게 자라더라고요.

2012년 2월에 처음 내려와 저희 산을 정리하면서 경운기 다니는 길 정도만 냈어요. 재배지 한 가운데 연못은 원래 습지였는데, 연못을 조성하다보니 물이 샘 솟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닥도 원래 암반이어서 방수포 처리도 필요없었어요.

지금은 그 둘레에 농장을 가꾸며 나온 자연석들을 쌓고, 개화시기를 연계해서 조팝나무·꼬리조팝나무·라일락·병꽃 등을 심어 각각 다른 색과 모양의 꽃들이 차례로 피도록 했어요. 연못에는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와 가재가 살고 있죠.



우리 농장의 걱정 중에 하나는 야생동물 피해예요. 고라니, 멧돼지 등 동물들이 내려와 밭을 뒤엎죠. 농약도 화학비료도 없는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초반에는 재배지 둘레에 그물을 쳤다가 지금은 걷었어요. 어차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멧돼지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네도 피해가요. 서로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만났을 때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돼요. 5월 쯤 새끼를 낳아 함께 이동할 때는 위험하니 최대한 피해다녀야 해요.

저희 재배지의 밤풍경이 정말 좋아요. 분지 형태니까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느낌이죠. 이걸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 캠핑 공간을 여는것도 생각 중이에요.

사실 임업은 너무 힘들어요. 산은 변수가 많으니까요. 폭우가 오면 길이 끊기기도 하고, 여름에

는 작업로가 금방 풀로 뒤덮여서 예초기로 제초
해줘야 하죠. 그래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산을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2015년 한국임업진흥원
에서 연 농장마스터플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을 받기도 했고,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각종 꽃
과 나무들을 다양하게 많이 심어 지금도 계속 조
성 중이에요.